



제목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1. 2. 7.
저자	Mary Boyce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52
ISBN 또는 ISSN	978-0415239035

내용 요약

이 책은 조로아스터교의 신앙체계와 종교의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계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이다.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는 개인심판, 천국과 지옥, 최상의 창조자 신, 재림 구세주에 대한 교리를 최초로 가르쳤다. 이러한 교리들은 여러 유대교 학파와 기독교가 받아들인 교리이다. 교리적 설명과 역사적 재건작업 결과, 조로아스터교는 인도-이란 배경에서 시작하여 조로아스터가 창시했으며, 이란의 거대한 세 제국인 아케메니드 왕조와 아르사크 왕조와 사산 왕조의 국가종교였다. 조로아스터교는 다른 세계종교들-동북쪽으로는 불교, 서쪽으로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게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 아랍 무슬림들이 이란을 정복한 이후 조로아스터교는 국가종교로서의 세속적 권력을 상실했지만 소수 신앙으로 명맥을 계속 이어왔다. 아주 오래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다.

이 책은 조로아스터가 선포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3500년 동안 이어져 온 조로아스터교의 신앙 역사를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조로아스터교의 인도-이란 배경을 소개하고 있으며, 2장은 창시자 조로아스터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3장은 마즈다에 대한 예배 의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4장은 선사시대의 조로아스터교를 다루고 있다. 5장~9장은 이란의 거대한 세 제국인 아케메니드 왕조와 아르사크 왕조와 사산 왕조 시대의 국가종교로서의 조로아스터교를 보여준다. 10장~13장은 이슬람의 이란 정복 이후 세속 권력을 상실한 조로아스터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으며, 14장은 현대 조로아스터교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